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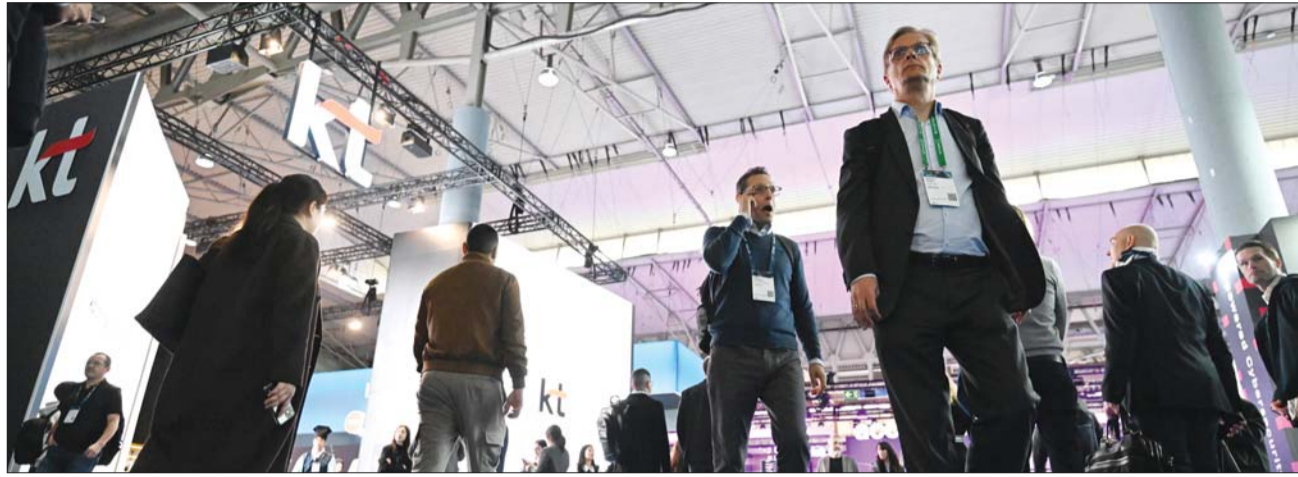
정부·기업 'MWC25' 총출동

SKT 'AI 피라미드 2.0' KT '인프라 운영' LGU+ 'AX기술'

SKT AI DC부터 AI B2C 성공 도모
KT GPU 클라우드사업 추진
LGU+ 자체개발 AI 익시 공개

세계 최대 정보통신기술(ICT) 박람회 MWC25가 3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했다. 이동통신 사업에서 양자, 인공지능(AI) 사업으로 무게추를 옮긴 통신3사는 수백 평 규모의 대형 전시관을 마련하고 미래 사업 비전으로 낙점한 최첨단 기술을 쏟아내고 있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MWC25 개막 하루 전 발표한 미래 AI 기술 수익화 전략인 'AI 피라미드 2.0'과 발맞춰 통신사발(發) AI 혁신을 소개했다. AI 피라미드 2.0 전략은 1단계 AI DC, 2층 AI B2B, 3층 AI B2C로 구성된다.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AI 피라미드 2.0 전략의 첫 걸음은 AI DC 분야다. SK텔레콤은 AI DC 분야로 가장 빠르고 안정적인 수익화를 시작한 후 궁극적으로 AI B2C 사업의 성공까지 도모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5' 개막을 맞은 3일(현지 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라 그란 비아 전시장이 참가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공동취재단

할 예정이다.

아울러 SK텔레콤은 기존 통신업의 논리와 지식을 학습한 특화 거대언어모델(LLM)을 개발해 신규 서비스는 물론 고객 관리·마케팅 등 영역에도 활용하는 모습을 구체화했다. 특히 ▲고객지원 AI 컨택센터(AICC) ▲챗봇이 구현된 버추얼 에이전트 등 텔코 LLM를 기반으로 여러 적용 사례 등을 전시했다.

또, 미래 AI 인프라의 핵심 중 하나로 꼽히는 AI 데이터센터(AIDC) 관

련 주요 기술들도 전시했다. 차세대 데이터센터 열관리 방식으로 평가 받은 '액체 냉각'을 포함해 AI 반도체 기업 사피온, AI DC 보안 기술 등이 관람객을 맞이했다.

KT는 GPU 클라우드사업(GPUaaS)을 추진하는 만큼, AI 인프라 운영을 위한 최신기술 선보였다. 이번 MWC에서 선보인 AI 에이전트 'GPU 할당 에이전트'는 AI 서비스 개발사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기업이 가진 GPU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게 도움으로써 전체적인 AI 학습 또는 운영에 드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준다. 관리자가 직접 GPU를 관리하는 것 보다 효율을 20% 이상 높일 수 있다는 게 KT의 설명이다.

KT 측은 "최근 전 세계적인 AX(AI 전환) 수요 증가로 GPU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LG유플러스는 자체 개발한 AI 익시(ixi)를 공개하고 AI를 비롯해 내재화한 다양한 기술을 산업계로 확산할 수 있는 AX 기술들을 대거 선보였다. LG유플러스는 익시존을 별도로 마련하고 ▲U+서비스에 AI 기능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AI 기술을 API 형태로 제공하는 'ixi-APIs' ▲비개발자도 챗봇과 같은 AI 서비스를 손쉽게 생성할 수 있는 플랫폼인 'ixi-Studio' ▲개발자를 위한 코드 분석 솔루션 'ixi-Jihye' 등을 전시했다.

또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기업의 업무 효율화를 지원하기 위한 'AICC'와 '비전 AI'도 전시했다. LG유플러스의 AICC는 고객센터 운영 노하우와 기존 인터넷프로토콜 컨택센터(IPCC) 1위 사업자 경험을 바탕으로 음성 AI 기술과 텍스트 AI 기술을 결합, 고객 상담을 자동화하고 상담사의 업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비전 AI 기술은 문서를 빠르게 분석하거나 주요 장면을 분석하는 등 산업현장이나 콘텐츠 제작에 활용돼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韓 정부, 차세대 통신분야 글로벌 협력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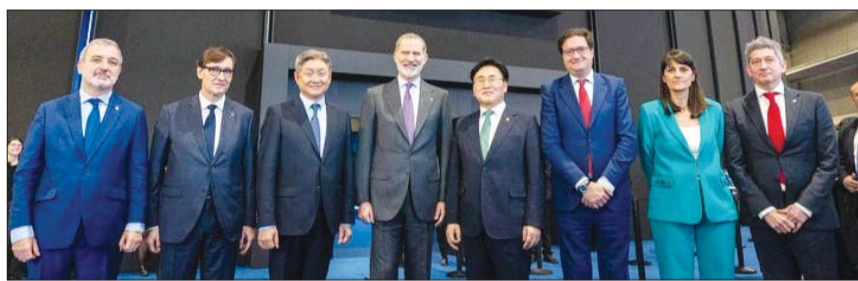
과기부-GSMA, 현장서 업무협약
5G-A, 6G, AI 연결망 응용 협력
방통위, AI 대전환 통신기술 미래 논의

우리 정부가 차세대 통신분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MWC(모바일 월드콩그레스) 25'에서 동문서주하며 힘쓰고 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MWC25 현장에서 비벡 바드리나트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신임 사무총장을 만나 차세대 통신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미래 네트워크 전략과 비전을 공유하는 별도의 면담 시간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은 GSMA와 과기정통부 간에 진화된 5세대 이동통신(5G-A), 6세대 이동통신(6G), 인공지능(AI)의 연결망 응용 등 차세대 통신분야의 양자간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과기정통부는 5G의 선도적 경험과 6G 추진에 관한 정책 및 정보를 공유하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이 MWC를 방문한 스페인 국왕 펠리페 6세를 접견했다. 왼쪽부터 바르셀로나 시장, 카탈루냐 주지사, 주스페인한국대사, 스페인 국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스페인 디지털전환공공기능부 장관, 디지털화인공지능차관 등. /과기정통부

며,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는 이러한 정보를 최신 추진 전략에 반영하고 한국의 우수사례 홍보 등을 지원한다.

이어 유 장관은 스페인 국왕 펠리페 6세를 접견하고 대한민국과 스페인 양국 간 과학기술과 디지털 분야의 활발한 협력을 제안했다. 국왕은 디지털 강국인 한국과의 협력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에는 폴란드 부총리 겸 디지털부 장관인 크쥐슈토프 가브로브스키 장관과 양자 면담을 통해 양국의 AI 정책과 법, 디지털 정책 공유 등을 논의했다.

방통통신위원회도 MWC25에 참가해 국가간 방통통신 협력 확대에 일조했다. 방통통신위원회 김태규 부위원장은 현지시간 3일부터 MWC25에 참가해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첫날에는 국내의 주요 기업 부스를 참관하고 4일에는 GSMA 마츠 그란리드 현직 사무총장과 비벡 바드리나트 차기 사무총장을 만나 AI 대전환과 관련된 통신 기술 미래에 대해 논의한 뒤 KT,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전시회 주요 부스를 돌아볼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삼성디스플레이, 올레드 체험존 마련

크라프트 '다크앤다커 모바일' 체험

삼성디스플레이가 크라프트와 함께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의 우수한 화질로 신작 게임 '다크앤다커 모바일'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를 열었다고 4일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는 3일(현지시간) 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한 세계 최대 모바일 기기 박람회 'MWC 25'에서 부스 내 게임 체험존 '더 위닝 엣지'를 마련했다.

체험존에서는 크라프트가 올레드 상반기 글로벌 출시 예정인 '다크앤다커 모바일'을 삼성전자의 '갤럭시 S25', '갤럭시 Z 폴드6'로 경험해 볼 수 있다.

크라프트의 이 신작 게임은 중세 판타지 세계관을 배경으로 탐험과 전투의 공간인 던전에서 몬스터와 싸우며 탈출하는 익스트렉션 RPG(역할수행 게임)이다. 지난해 8월 독일 쾰른에서 열린 '게임스컴 2024'에서 개막 3일 만에 시연 참가자 수 1만명을 달성할 만큼 전 세계 게이머들의 기대를 모으고



삼성디스플레이 'MWC25' 전시부스. /구남영 기자 koogija_lee@

있는 화제작이다.

올레드 디스플레이의 강점은 빠른 응답속도와 리얼블랙 화질을 갖췄다는 점이다. 또 명암을 더욱 세밀하게 나타내는 이미지 표현 기술인 HDR(High Dynamic Range)와 색의 농도 차이를 풍부하게 보여주는 저계조 표현력이 우수하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삼성 올레드 디스플레이는 어두운 던전 속 몬스터의 움직임까지 디테일하게 표현해 게임의 몰입감을 높이는 등 최적의 모바일 게임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남영 기자 koogija_lee@

SKB, 소상공인 위한 특별 프로모션

'힘내CEO' 진행... 통신비 절감

SK브로드밴드가 오는 8월 말까지 비용 절감과 매장 운영에 도움주는 소상공인 고객 대상 특별 프로모션 '힘내CEO(힘내세요)'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인터넷을 신규 가입하는 소상공인 고객은 1년 약정과 함께 통신비를 알뜰하게 절약할 수 있다. 기가라이트 와이파이(최대 500Mb

ps)를 1년 약정으로 선택시 기존 1년 약정 요금인 월 5만1700원 대비 통신비가 최대 40% 절감되는 월 3만8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이는 3년 약정 요금인 월 3만4100원과 비교해도 저렴하다. 1년 약정이 종료된 후에도 동일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고, 요즘가족결합 할인과 더드림성공패키지 할인과도 중복 적용된다. 모뎀 임대료(월 2200원)와 인터넷 설치비(3만

6300원/인터넷 단독시)도 전액 무료다.

SK브로드밴드는 오는 5월 말까지 인터넷과 소상공인 전용 솔루션 상품을 함께 가입하는 선착순 고객에 한해 웰컴키트도 제공한다.

POS세트(카드결제기), 키오스크, 테이블로봇, 서빙로봇, CCTV, 결제안심, 소상공인 IP공유서비스 등 7종의 솔루션 중 1종만 가입해도 받을 수 있는 웰컴키트는 ▲이더넷센터(C to LAN 센터) ▲WiFi 안내판 ▲스마트 터치펜 ▲케이블홀더 등 매장에 필요한 상품들로 알차게 담았다. /김서현 기자

크몽, 기업 맞춤형 외주 서비스 론칭

크몽비즈, 품질보장 정책 특징

국내 최대 프리랜서 플랫폼 후면 클라우드 크몽이 기업 고객을 위한 맞춤형 외주 서비스 '크몽 Biz'를 론칭했다고 4일 밝혔다.

크몽비즈는 기업 고객이 외주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서비스다. 가장 큰 특징은 품질보장 정책으로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최대 100%까지 환불을 보장해 품질에 대한 기업 부담을 크게 낮췄다. 외주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기업이 경험할 수 있는 불확실성과 품질 편차 문제를 최소화한 것이 핵심이다.

크몽은 자사 플랫폼에 등록된 50만 개 서비스 중 법인 거래 경험이 있는 700여 개 서비스를 엄선했다. 이 과정에서 고객 만족도가 98% 이상인 전문가들을 우선 선정했다. /최빛나 기자 vitna@